

“GM군산공장 대응, 전북도가 서둘러야”

박재만 원내대표 도의회 5분발언... “T/F팀 꾸려 신차 배정·회생방안 등 마련” 촉구

최근 철수설 논란의 중심에 있는 GM군산공장에 신차 생산량량 배정 및 군산공장 회생방안 등을 촉구하는 주장이 12일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 5분발언을 통해 “한국지역의 철수설에 얽매어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군산공장에 신차 생산량량 배정이 시급하고 정부와 협상에 있어서도 군산공장 회생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GM 군산공장은 지난해 12월 가동중단을 했다가 지난달 하순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으나 지난 8일부터 3월까지 다시 가동중단에 들어갔고 4월 이후 재가동 계획이 불투명한 상태다.

GM의 배리 앵글 해외사업부장은 지난 연말 방한 당시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인원 감축과 구조조정, 철수설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하고 있으며, 군산공장은 현재로서는 정부의 도움 없이는 해결책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의 도움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GM의 최고경영자인 메리 바라는 “독자 생존이 가능한 사업을 위해 조치를 해나갈 것이며, 이익을 내지 못한다면 과산뿐이다”라고 발언하며 노골적으로 GM 철수설에 기대를 품어부었다.

미국 GM 수뇌부의 연이은 발언 배경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수설을 흘리며 지역민심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지난해 10월 산업은행이 보유했던 GM의



박재만 의원



“행복한 설 명절 되세요”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과 당직자, 시도의원들이 12일 오전 전주역에서 귀성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한국GM 자산매각에 대한 거부권이 사라졌다.

문제는 자구노력 없는 미국 GM의 그간 행태로 볼 때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은 뒤에도 호주GM 사례와 같이 머뭇머뭇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GM 호주공장은 2011년 호주 정부로부터 10억 달러를 지원받으며 2022년까지 철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GM은 2017년 10월, 이러한 약속을 깨고 공장폐쇄를 강행하고 말았다.

원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자구노력 없는 미국 GM의 그간 행태로 볼 때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은 뒤에도 호주GM 사례와 같이 머뭇머뭇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GM 호주공장은 2011년 호주 정부로부터 10억 달러를 지원받으며 2022년까지 철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GM은 2017년 10월, 이러한 약속을 깨고 공장폐쇄를 강행하고 말았다.

박 원내대표는 “사전에 철정한 대응이 미흡하다면 눈 뜨고도 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군산공장에 우선적으로 신차물량을 배정할 것과 공장 회생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전북도가 서둘러 GM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협력을 통해 군산공장과 지역경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회생방안 도출에 전사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김광수 “가면논란 뉴라이트 정치 떠나라”

국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은 12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저해하기 위해 느닷없는 가면논란을 일으킨 뉴라이트 정치인들을 향해 정치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진행되며 남북 정상회담 성사 분위기가 조성되자 뉴라이트 세력들은 평화올림픽이 못 마땅한듯 느닷없이 ‘가면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첫 보도한 기자마저 오보를 시인하고 사과한 일을 수십년 전 사진까지 공개하며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친일역사관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시켰던 뉴라이트 정치인들은 이번 가면논란을 통해 같은 길로는 합리적인 보수 등으로 포장해도 결국, 수구보수 자유한국당과 일관성 쌍둥이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며 “뉴라이트 정치인들은 위선의 가면 벗고 정치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공식 사과한 점에 대해 “늦은 감은 있지만, 국방부가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했던 과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환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최근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 권성동 의원의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 전주에 봉침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축소·부실수사 의혹 등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매우 뜨겁다”고 지적하며, 새 가지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특검 실시를 비롯한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김광수 의원

이호근 “서고창변전소, 전기공급설비 구역 변경을”

전북도의회 이호근(더불어민주당, 고창) 의원은 12일 제35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고창변전소 부지를 ‘전기공급설비 구역’으로 용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고창변전소가 위치한 고창전력시험센터는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상 765kV 초고압 실증 등 연구용으로 한정돼 현재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상업용으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전은 작년 5월 서고창변전소 부지 용도변경을 고창군에 신청했다. 그러나 군은 경관침해와 당초 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차례 불허했다. 이에 한전은 지난 1일 서고창변전소 용도변경 입안제안서를 재차 제출, 군은 3월 중순까지 이를 결정해야 한다.

이호근 의원은 “고창군이 또 다시 용도변경을 반대한다면 ▲변전소 신규 건설로 인한 세금납부 ▲공사연기에 따른 시간적 문제 ▲해상풍력 실증설비 설치완료 후 전기 공급 중단으로 중장비 손상 등의 문제가 우려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창군 발전과 정부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산업단지의 안전한 전력공급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고창변전소의 용도변경을 당연하다”며 “고창군의 대응적 결단”을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이호근 의원

“태권도원 민자유치 물꼬트기, 전북도가 나서야”

백경태 도의원 5분발언... “태권어드벤처 공공투자 민자유치 사업비의 6%도 안 돼”

민주당, 가짜뉴스 33건 추가 고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가짜뉴스 유포 및 약성댓글 33건을 추가 고소했다. 지난달 29일, 지난 5일에 이어 3번째 고소로 총 305건을 고소했다.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또 대책단은 네이버가 가짜뉴스에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의 단장은 “2주전 네이버 측에 댓글 조작 자체조사, 검색어 강화, 댓글 신고 기능 복원 및 삭제 강화를 요구했다”면서 “네이버 답변은 사후에서 노력해 처리하고 있으며 불쾌감의 정도는 이용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용자 간 서비스 불편 의견이 존재한다는 국민의 정서와 민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

지지부진한 태권도원 민자유치 사업에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백경태 의원(무주·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태권도원 민자유치 지구 사업에 전북도의 적극적인 결단을 요구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2017년 무주 세계태권



백경태 의원

도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태권도원은 태권도 전문공간으로 8천 만 태권도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으나, 아직까지 미완성, 반쪽짜리 상태이다.

태권도원 민자유치 지구는 총 부지 231만 4,213㎡의 6%에 해당하는 13만 3,223㎡에 1,066억 원을 투자해 호텔, 스포 등 체육·휴양·레포츠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현재 구역만 설정했을 뿐 사업대상지는 허허벌판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전북도는 지난 2016년 6월 민자유치 사업비의 6%도 채 안되는 61억 원 규모의 태권어드벤처 시설을 공공시설로 변경 추진하기로 했으나 과연 얼마나 투자

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기반시설이나 저렴한 토지공급 등 민간투자에 따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태권도원 민자유치 사업은 더 이상 기존 방식을 고수하며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새만금 게이트웨이 사업을 전북개발공사가 주도하면서 결국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물꼬가 트게 된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태권도원도 비슷한 상황으로 이제는 전북도가 태권도원 민자유치 지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설레는 설 명절, 부안군 농·특산물 선물세트로 오복과 행복을 나누세요!!

 아름다운 마음상자 70,000 www.kaemibood.co.kr 개입주점 063-583-7748	 육고기 선물세트(2단) 55,000 www.kaemibood.co.kr 시정육고시 063-583-1844	 고대미 선물세트 25,000 www.kaemibood.co.kr 영주산사랑 010-6614-9245	 부안참봉와인1호 35,000 www.donginwine.co.kr 내빈산주조 063-582-0027	 부안참봉와인2호 27,000 www.donginwine.co.kr 내빈산주조 063-582-0027	 부안참봉주세트 15,000 www.donginwine.co.kr 내빈산주조 063-582-0027	 잡곡선물세트 32,000 www.buanrice.co.kr 제일농산 063-581-0608	 오복오갈 오곡선물세트 35,000 www.buanrice.co.kr 단이네 맛국 010-3189-7874	 국내산 아로니아, 오디 원액 46,000 www.doosanraver.com/hadamrberry 해담은베리 010-4879-0695	 부안강산참봉와인 (선물세트2호) 28,000 www.buan.com 부안강산명주 063-584-9960
 부안해물오디주 (선물세트4호) 24,000 www.buan.com 부안강산명주 063-584-9960	 부안강산명주 (선물세트5호) 15,000 www.buan.com 부안강산명주 063-584-9960	 남주그라산물세트8호 26,000 www.buan.com 부안강산명주 063-584-9960	 오디홍선물세트 50,000 www.buan.com 내슈릴림 063-583-7718	 생표고버섯 (1kg, 2kg) 15,000 ~ 30,000 www.bigraver.com/418115 버섯천지 063-581-0500	 특작오복선물세트 50,000 www.buan.com 영초목아리울 063-581-6448	 오디참+홍일차+오디즙 45,000 www.buan.com 바른역거리 010-2270-8039	 누에완선물세트 72,000 www.buan.com 바른역거리 010-2270-8039	 참봉세트 56,000 www.oddesang.com 이레농원 063-583-5272	 홍도오디역거스 80,000 www.oddesang.com 이레농원 063-583-5272
 오복명품 수산물세트 1호 50,000 www.buan.com 영광수생물 010-3676-1456	 홍일고등어선물세트 (대,중,소) 25,000 ~ 35,000 www.buan.com 참봉푸드 063-584-8289	 홍일고등어 선물세트 (10리) 30,000 www.buan.com 부안수협 063-584-3101	 공보배추 (250g) 40,000 www.buan.com 신나어남촌 010-2619-3253	 오디밭초코칩쿠키 10,000 ~ 10,000 www.buan.com 알바니유제품 010-5314-4469	 검곡차세트 60,000 www.buan.com 삼꽃향기 010-8984-4316	 수제강정 선물세트(2단) 28,000 ~ 47,000 www.buan.com 국식플러스 063-581-6885	 건강천한경 5곡잡곡세트 30,000 ~ 60,000 www.buan.com 국식플러스 063-581-0156	 해미김1호 20,000 www.buan.com 비디와항공 063-583-0035	 김자반세트 15,000 www.buan.com 비디와항공 063-583-0035